印 불교, 진흥 정책으로 다시 일어서다

동남부 위치 안드라 프라데시주
주도 아마라바티에 행정 집중해
불교유적 중심 도시 브랜드 설정
주지사 임기 첫날부터 예불 드려
불교 정책에 핵심 두겠다는 상징

박영빈 객원기자


아마라바티 사가라 호수공원에 세워진 대불. 사진출처=글루트 닷컴

인도 동남부에 위치한 안드라 프라데시주(Andhra Pradesh)가 최근 불교를 주도인 아마라바티(Amaravati)의 주요한 브랜드로 내세우는 정책을 일으킬 전망이다. 6월 15일, 인도의 '사우스 퍼스트' '글루트 닷컴' 등은 안드라 프라데시주에 부는 새로운 바람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2014년 안드라 프라데시주가 텔랑가나주와 분리되면서 기존의 주도였던 하이데라바드시가 텔랑가나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아마라바티가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새로운 주도로 선정됐다. 당시 주지사인 찬드라 바부 나이두는 아마라바티를 주 제일의 도시로 선언하고 모든 행정과 인프라를 집중시켰다. 이때 나이두 주지사는 아마라바티 불교유적군을 주 브랜드로 지정하고 다양한 도시 브랜드 정책을 펼쳤다.

현지 언론들은 "당시 주정부는 일본, 중국 등 불교가 성행한 국가의 투자를 유치하고, 불교라는 소프트 에너지를 이용하여 아마라바티를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력적으로 펼쳤다"고 전했다.

아마라바티는 아소카왕의 통치기간이었던 기원전 3세기경부터 고대 불교의 중심지였다. 이미 그 당시에 불탑과 불교 사원들이 건립됐으며, 서기 2세기경 사타바하나(Satavahanas) 왕조땐 대승불교의 요람으로 용수보살도 이곳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에는 인도와 주변 국가에서 많은 구법승들과 상인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거대한 국제도시로 번성한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아마리바티 불교유적군의 중심에 해당하는 아마라바티 스투파(Amaravati Stupa)는 인도에서 가장 큰 사리탑 중 하나로, 본래 산치대탑보다 더 크고 화려했던 것으로 전한다. 19세기 초 영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수많은 불교유물들이 출토됐으며 이 유물들의 대다수는 현재 대영박물관의 아마라바티 갤러리에 소장돼있다.

그러나 2019년 주지사 선거에서 나이두 주지사가 재선에 실패하고, 뒤를 이은 자간 모한 레디 주지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마라바티의 국제도시 브랜딩을 포기하면서 불교 진흥정책이 모두 중단됐다. 현지 언론들은 나이두의 재선 실패에 대해 "급진적인 불교 브랜딩이 대중의 반발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레디 주지사의 임기 동안 아마라바티의 인프라가 극도로 낙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2일 진행된 2024 주지사 총선에서 다시 재선에 성공한 나이두 주지사는 당선 후 주지사 사무실 벽에 걸린 불화에 예배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불교 진흥 정책을 다시 일으킬 것을 암시했다.

현지 언론들은 "나이두 주지사가 임기 첫날부터 예불을 드리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불교를 주요 핵심으로 한 정책들이 다시 한 번 펼쳐질 것"이라며 "부처님께서 아마라바티에서 다시 한 번 깨어나셨다"고 평가했다.

泰 스님들, 평화 기원 3000km 미국 도보순례

스님 11명 3월 29일 플로리다 출발
6월 29일 나이아가라 폭포서 회향


세계평화를 위한 도보순례 중인 태국 스님들. 사진출처=더 프레더릭 뉴스 포스트

주황빛 가사를 수한 11명의 태국 스님들이 평화와 축복의 인사말을 전하며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더릭시를 걷고 있다. 6월 11일 미국의 '더 프레더릭 뉴스 포스트'는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 동부 해안선을 따라 도보 순례 중인 스님들을 소개했다.

플로리다 주에 소재한 태국불교 사원인 왓 플로리다 담마람(Wat Florida Dhammaram) 사원의 프라 위짓 담마파니 스님은 "스님들은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올해 3월 29일 플로리다 주의 키웨스트에서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순례의 마지막 목표는 뉴욕주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소개했다. 전체 3000Km를 넘는 이 도보순례길에서 스님들은 현재 약 500km만을 남겨두고 있다. 담마파니 스님은 "이 순례는 단순한 걷기가 아니다. 걷는 것이 곧 명상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통해 세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행선을 통한 순례의 공덕을 설명했다.

순례 중인 스님들은 올해 6월 4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있는 플로리다 하원의원 대런 소토 사무실을 방문해 세계 평화를 위해 내면의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걷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매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며 매년 다른 경로와 다른 목적지로 행진한다. 순례단의 스님들은 네팔,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태국 등 전 세계 각국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들이다.

순례단은 현재 프레더릭시 중심부를 통과했으며 며칠 안에 펜실베니아주로 계속 이동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5일이나 26일경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착할 예정이며 6월 29일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에서 회향을 위한 법요식을 봉행한다.

지난 3년간 도보순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프라닛 트릭젠은 "이전 순례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심지어는 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순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트릭젠은 "스님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 시간과 경로를 맞춰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통 스님들께 먹거리를 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들이 평화를 위해 걷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거나 기뻐하는 등 항상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프레더릭시 아시아계 미국인 센터의 전무이사인 엘리자베스 청은 순례단의 도시 방문과 편의를 제공하면서 순례단의 방문을 환영했다. 청 이사는 "세계적으로 전쟁과 갈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은 내면의 평화를 강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스님들의 방문과 도보 순례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움직이는 예시"라며 순례단의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캄보디아 동자승, 엄마와 눈물의 생이별

해외 이주노동자와 동진 출가 증가
사회 문제로 대두…정부 관심 촉구


동자승 리티(10세)가 태국 이주 노동을 결정한 어머니와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더 프놈펜 포스트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인근 국가로 이주하는 캄보디아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캄보디아 불교 사찰에 맡겨지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캄보디아의 '더 프놈펜 포스트'는 캄보디아의 동자승 증가와 부모의 해외 이주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동자승과 어머니가 작별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눈시울을 붉혔다. 영상 속 동자승은 니 리티(10세)로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태국 이주노동자로 지내고 있으며 어머니도 가계를 위해 태국 이주를 결정하고 사찰에 아이를 맡겼다. 리티 가족의 생이별 소식을 접한 현지 시민사회단체(NGO)는 리티의 어머니에게 캄보디아 내 일자리를 제공해 생이별 걱정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왔다.

캄보디아 세레이 바타나람 사원의 릴 나이 주지스님은 "우리 사원에는 리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6명의 동자승이 있다. 아이들은 오전에 초등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부처님 가르침과 영어를 공부한다. 아이들의 의식주는 불자들의 공양과 보시로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다케오 주 네앙차마오 사원도 동진 출가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415명의 동자승이 거주하고 있으며 38명이 추가로 출가할 예정이다. 해당 사원의 탄 분송 스님은 "동진출가자 대부분은 고아거나 해외 이주노동자의 자녀이다. 아이들은 낙후된 지역 출신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는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다. 부모들은 돈벌이를 위해 해외로 떠나며 자녀는 교육과 보육을 위해 사찰로 보낸다. 사실상 사찰은 보육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왕립 아카데미 연구원은 "현대의 캄보디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찰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찰의 부담을 덜어주고 캄보디아 아동 보호를 위해 정부의 담당 부처 출범과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中, '신장의 역사와 미래' 국제포럼

고대 실크로드 거점 모어 사원 발굴 및 연구 공유 목적



사진출처=차이나데일리

지난 6월 11일 중국 일간 영자신문 '중국일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에서 열린 국제포럼 개막 소식을 전했다. 해당 포럼은 중국 국내외 전문가 170여 명이 모여 '신장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모어사원의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 '모어'(mo'er)사원은 올해 4월 발굴된 고대 사원으로 측천무후가 설립한 대운사였을 것으로 추론한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를 하나로 모은 이유 중 하나는 모어사원의 발굴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함"이라며 "신장의 독특한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실크로드의 마지막 거점인 카슈가르의 고고학 발굴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둔황학원의 닐 슈미드 교수는 둔황 막고굴 98호에서 발굴된 호탄국(우전국)왕 이성천(재위 912~966년)의 초상화 연구를 발표했다.

절강대 석좌교수이자 케임브릿지대 아시아·중동학부 명예교수 임레 갈람보스 교수는 중세 중국어와 탕구트 필사본 연구를 발표했다.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제 포럼 폐막 후 추가 연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신장의 다양한 문화유적지 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300만원
▶1차 9월 26일 출발~10월 5일 도착 (10일 일정)
▶2차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3차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4차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5차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6차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발리 7일
8월 27일 출발~9월 2일 도착(7일간)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불리우는 보로부두르 대탑은 1,300여 년전 인도네시아에서 불교가 찬란한 빛을 내던 시기에 조성된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부처님의 생애가 462개의 커다란 벽면에 상세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또한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동참금 | 269만원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출발일: 9월 21일~28일(6박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399만원

티베트 성지순례 8일
영혼의 고향이라는 티베트,
그곳에서 불교의 깊이와 신심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일 : 8월 20일~27일
동참금 | 29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샤캬–시가체–체탕–삼예–인천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신화를 창조하게 된 모티브를 부여해준 신비로운 산으로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지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움에의 열망과 영감의 근원을 찾아서 순례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2차 7월 20일~8월 4일(16일간)
3차 8월 24일~9월 8일(16일간)
동참금 | 539만원
일 정 | 일정: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티베트 성지순례를 기록한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수미산)책을 드립니다.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